

삶을 바꾸는 미소

우 흐트도르프 회장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 목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언급한다. 하지만 다른 이를 사랑하기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어울리는 것이 힘겨운 탓에 타인과의 교류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는 친구와 가족,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느꼈던 사랑을 떠올려 보자. 그때 느꼈던 기쁨을 떠올리며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랑을 느낄 기회가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며, 그분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심하자.

지금껏 같이 어울리기 힘들었던 친구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다. 그런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 머지않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인 그들에게 그분께서 어떤 일을 베푸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자! 상호 항상 모임 활동이나 다른 친구들과의 야외 활동에 그 친구를 초대하거나, 과제를 도와주겠다고 해 본다. 웃으며 짧게 “안녕”하고 인사를 건넬 수도 있을 것이다. 작은 일들이 여러분과 친구 모두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

어린이

명중!

우 흐트도르프 회장은 복음이 활쏘기 연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겨누어야 해요. 제일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면 언제나 한가운데를 맞힐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과녁에 화살을 그려 넣으세요. 좋은 행동이 아닌 과녁은 X로 표시하세요.

